

# 관광관련 정부정책

---

제825호 (2022년 8월 넷째 주) 정책정보센터 Tour.go.kr

---

|                                                                        |    |
|------------------------------------------------------------------------|----|
| [문화체육관광부] 디엠지 평화의 길 11개 노선으로 비무장지대 평화여행 떠나요 .....                      | 2  |
| [해양수산부] 제10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개막 .....                                    | 4  |
| [서울특별시] 서울시-무신사, 넥스트 한류 관광 활성화'서울 스트릿패션 여행주간' .....                    | 6  |
| [부산광역시] 부산시, 관광두레 활동가(PD) 및 주민사업체 발굴 .....                             | 9  |
| [인천광역시] 인천시, 을왕리 해수욕장서 친환경 클린관광 캠페인 .....                              | 10 |
| [전라북도] 관광 활성화 위해 호·영남이 한자리에 제22회 호·영남(전북-경북) 관광교류전<br>경북 울진에서 열려 ..... | 11 |
| [전라남도] 전남도, 캠핑문화 확산해 체류형관광 활성화 .....                                   | 13 |

## [문화체육관광부] 디엠지 평화의 길 11개 노선으로 비무장지대 평화여행 떠나요

- 9월 13일부터 11개 '테마노선' 전면 개방, 8월 23일부터 참가 신청 접수

□ 정부는 9월 13일(화)부터 12월까지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지자체 10곳에 조성된 '디엠지(DMZ) 평화의 길(이하 평화의 길)' 테마노선 11개를 전면 개방한다. 이에 따라 8월 23일(화)부터 관광객들의 사전 참가 신청을 받는다.

□ '평화의 길'은 전쟁의 상흔과 분단의 아픔이 서린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을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길이다. 국민들은 '테마노선'과 '횡단노선'(23년 개방 예정)을 걸으며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 - 테마노선(문체부)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지자체 10곳 대상)별 예약 이용노선(도보+차량)

- 횡단노선(행안부) 인천 강화↔강원 고성(총 524km) 간 횡단 자유이용 걷기길

□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파주, 철원, 고성 등 3개 '테마노선'을 시범적으로 개방했으며, 이들은 짧은 기간 동안 국민 1만 5천여 명이 다녀가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운영을 중단했고, 이어서 코로나19가 확산하여 중단 조치는 계속됐다. 이후 새롭게 개방을 원하는 지자체와 함께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 11월에 7개 노선을 확대 개방해 다시 한번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으나 겨울철 철새 보호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운영을 조기 종료한 바 있다.

■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10개 지자체, 차별화된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노선 구성

□ 이번에 개방하는 '테마노선' 11개에는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지자체 10곳이 모두가 참여했다. 각 지자체는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돌아보고 평화와 미래를 향한 노력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대표 관광자원으로 노선을 구성했다. 모든 노선에는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군부대 등의 협조를 받아 차량으로 이동하는 구간을 포함했다.

■ 무단 취소 방지 위해 받는 참가비는 지역상품권, 특산물 등으로 환급해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 11개 '테마노선' 참가 신청\*은 8월 23일(화)부터 한국관광공사 '평화의 길' 누리집(www.dmzwalk.com)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모든 노선은 무단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가비(1인당 1만 원)를 받는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도록 이 금액은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 특산물 등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 방법 등은 '평화의 길'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 (참가 신청 절차) ① 온라인 참가 신청(희망일 21일 전) → ② 당첨자 추첨(희망일 14일 전) → ③ 선정 통보(희망일 14일 전) → ④ 정원 미달 투어 재모집(희망일 10일 전) → ⑤ 참가비 입금(희망일 9일 전) → ⑥ 참가 확정(희망일 7일 전) → ⑦ 군부대에 참가자 명단 제공(희망일 4일 전) → ⑧ 최종 안내 문자 발송(희망일 1일 전) → ⑨ 테마노선 프로그램 참가 (희망일)

■ 관계부처 간 실질적 협력 강화로 ‘평화의 길’ 효율적 운영

- 정부는 ‘평화의 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2019년 4월, 5개 부처 간 ‘디엠지 평화의 길 활성화’를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엠지 평화의 길 통합운영체계’를 마련해 관계부처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 문체부는 운영 총괄과 홍보 마케팅, ▲ 통일부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내 방문객 안전과 군사 안보 협력, ▲ 환경부는 생태조사와 탐방으로 인한 생태 훼손 방지 협력, ▲ 행안부는 거점센터와 횡단노선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는 이번 11개 ‘테마노선’ 개방에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지자체 10곳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평화의 길’이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대표관광 자원으로 발돋움해 코로나 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침체한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접경지역 지자체 등과 협력해 비무장지대의 역사, 생태 가치를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평화관광 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7) | 게시일 : 2022.08.18.)

## [해양수산부] 제10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개막

- 8월 19일부터 10일간 부산에서 국내 최대 해양레저축제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내 최대의 해양레저 축제인 제10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KIMA WEEK\*, 이하 ‘키마위크’)를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주관하는 본 행사에는 정부관계자, 요 - 보트 등 해양레저산업 관계자, 학계, 일반국민 등 약 3만 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 KIMA WEEK: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 키마위크는 아시아의 ‘킬위크(Kiel Week)\*’를 만든다는 목표로 해양레저의 저변을 확대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하고자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 기존의 단순 레저·스포츠 행사에서 벗어나 개막행사, 해양레저대회, 해양레저체험, 키마비치, 해양컨퍼런스 등 스포츠, 관광, 문화가 결합된 종합해양레저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하여 9년간 참여한 관람객은 약 29만명에 이른다.

\* 킬위크 축제: 1882년에 독일 킬(Kiel)에서 시작된 해양레저 축제로 요트전시 등 2,000여개 행사에 약 70개국, 2천 척의 요트와 연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참여

□ 올해 개막식은 해양레저 장비들을 활용한 퍼레이드 공연으로 해상에서 이루어진다. 마리나 대여업 및 해양스포츠 관련 9개 단체가 참여한 이번 개막행사는 TV와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되어 보다 생동감있게 서핑, 요트, SUP(스탠드업패들보드), 제트스키, 비치조정 등을 감상할 수 있다.

□ 해양레저체험 행사에서는 SUP, 카약, 유람선투어, 세일링요트를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고, 예약 플랫폼인 ‘바다야 놀자’ 앱을 통해 사전신청하면 이용가능하다. 또한 비치조정, 라이프세이빙, 바다수영 등 3개의 대회가 개최되어 다채로운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 그리고 코로나19로 2020년과 2021년에 중단되었던 키마비치를 조성하여 포토존, 체험부스, VR 체험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과 키마위크 캐릭터인 ‘요티’를 활용한 기념품 제작 공모전 등도 진행된다.

□ 이외에도 정부, 학계, 산업계 등 해양레저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해양컨퍼런스가 9~11월 중 열린다. 해양컨퍼런스는 학술대회, 정책 세미나, 국회정책토론회 등으로 구성되며, 해양레저산업 정책방향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중에 열리는 국제컨퍼런스에서는 ‘키마위크 10주년으로 본 축제를 통한 해양레저발전’을 주제로 국내외 연사들의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로 10회를 맞는 키마위크는 해양레저산업과 문화·관광을 조화롭게 융합하며 국제적인 해양레저축제로 자리잡고 있다.”라며,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해양레저산업과 관광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044-200-6186) | 게시일 : 2022.08.19.)

## [서울특별시] 서울시-무신사, 넥스트 한류 관광 활성화'서울 스트리트패션 여행주간'

- 서울 한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8.18.(목) 협약체결
  - 9.1.~4., 브랜드 탐방, 토크쇼, 콘서트런웨이 등 서울숲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서울 관광스타트업 4개, 중소 패션 브랜드 55개, 유니크한 지역 로컬업장 함께 참여
  - K-패션, 음악, 지역의 문화를 연결·확장한 서울 라이프스타일 신(新) 한류여행 제안
- 서울시는 무신사와 함께 9월 1일(목)부터 4일간 서울숲 및 성수 일대에서 ‘서울 스트리트패션 여행주간(NEXT FASHION 2022)’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한류 바람의 시작으로 패션·음악·지역문화를 연결하여 다양한 체험과 참여를 유도하고 로컬관광 소비를 증진시키는 문화체험형 관광 페스티벌이다.
- 서울시와 무신사는 본 행사에 앞서 서울시 한류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8월 18일(목) 체결했다.
- 천만 회원이 이용하는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규모가 작은 로컬브랜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체의 약점인 홍보·마케팅 등 브랜딩을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와 무신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넥스트 패션 2022 공동 추진’ 및 ‘패션 메이크오버 체험콘텐츠 개발’ 등 K-패션 테마의 한류관광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서울 스트리트 패션 여행주간(NEXT FASHION 2022)’은 드라마, 케이팝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중심의 한류관광을 넘어 한국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고 있는 로컬문화와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류관광 영역을 확장해 나갈 기회에 주목하여 기획하였다.
- 특히 한류 지지층인 젊은 세대들의 관광 트렌드인 “여행의 일상화, 다양화”를 반영할 수 있는 K패션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 일본에서의 K패션 인기는 1020세대를 중심으로 일상 속에 스며들고 있으며 요즘의 한류는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즐기는 놀이문화로(한국스러움을 일컫는 신조어: 한국풍, 강코웃포, 도한놀이) 진화하였다. 일본 MZ세대들은 K콘텐츠(K팝, 영화, 드라마) 소비를 통해 형성된 두터운 팬덤이 강점이다.
- 본 행사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가 주목하는 핫하고 힙한 서울의 패션 중심지 성수와 서울숲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세련된 관광 소비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놀이성(OOTD 인증샷)과 지역성(넥스트 성수 로컬투어 등)에 집중한 콘텐츠들로 채워졌다. 패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부터 관광객·일반시민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다.
- 먼저 서울을 대표하는 다양한 브랜드와 상품을 경험할 수 있는 ‘브랜드 팝업 부스’에

는 지금 가장 주목받는 브랜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신진 브랜드까지 55개의 중소기업 패션 브랜드가 참여한다.

- 또한 ‘서울시 관광 특별 부스’에서는 외국인 대상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광 스타트업 3개사가 참여하여 타투 프린팅, 헤어스타일 가상체험, 여행 정보제공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 패션과 창업에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를 위해 ‘브랜드 캠프’도 진행한다. 로컬여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서울 관광 스타트업 부로컬리의 창업 이야기를 시작으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직접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앞으로 국내 패션 시장을 이끌어갈 브랜드와 개성있는 뮤지션의 협업으로 꾸며진 ‘넥스트 패션 로드’도 주목해보자. 9월 2일부터 3일간 매일 두 차례씩 음악과 런웨이쇼를 결합한 콘서트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 패션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의 인플루언서를 초대해 트렌드 이슈와 스타일에 관해 이야기하는 ‘토크 얼라이브’도 즐길 수 있다.
-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넥스트 성수 투어’ 이벤트도 열린다. 브랜드 쇼룸부터 개성이 돋보이는 공간을 소개하는 지도를 제작해 서울숲 방문객에게 배포하고 제휴매장 방문 고객에게는 무신사 스토어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 언더스탠드예비뉴 야외무대에 진행되는 음악 라이브 ‘서울 소울 어게인’에서는 4팀의 재즈 아티스트와 국악 연주팀이 함께 한다.
- 이외에도 현장 방문객들의 스타일링을 인터뷰하는 라이브 방송 ‘온스트릿 라이브’, 전문 사진작가가 스트리트 스냅을 촬영해주는 ‘베스트 드레서’, 옷장 속 숨은 옷을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리웨어’ 등 다양한 참여 이벤트가 진행된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 한류관광 웹페이지([korean.visitseoul.net/hallyu](http://korean.visitseoul.net/hallyu))와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nextfashion\\_2022](https://www.instagram.com/nextfashion_2022))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통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수시 사용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현장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올해 처음 개최하는 「서울 스트리트패션 여행주간」은 한류 주 소비자인 MZ세대의 자발적 참여와 확산을 유도하고자 민·관이 함께 협업하여 준비하였다.”라고 말하며, “작지만 매력적인 브랜드의 성장과 로컬관광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 이어 “관광콘텐츠는 상시성(지역상권)과 희소성(로컬문화)이 중요하고, 서울 관광 경쟁

력은 거리와 지역마케팅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뉴욕의 소호, 브루클린처럼 패션문화가 담긴 성수를 이번 행사로 브랜딩하여 글로벌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관광산업과(02-2133-2786) | 게시일 : 2022.08.22.)

## [부산광역시] 부산시, 관광두레 활동가(PD) 및 주민사업체 발굴

- 부산시·한국관광공사·부산관광공사, 사업 협약 통해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본격 추진
  -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예비 활동가(PD)·주민사업체를 발굴,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조성
-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직무대행 신상용), 부산관광공사(사장 이정실)와 함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예비 관광두레 PD(활동가)와 주민사업체 발굴에 나선다.
- ☐ ‘관광두레’는 관광산업에 ‘두레’라는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가 결합된 것으로, 지역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관광사업 공동체를 가리킨다. 지난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민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의 창업을 지원·육성하고 있다.
- ☐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은 ‘관광두레 사업’을 기반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예비 관광두레 활동가와 주민사업체를 발굴·육성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 ☐ 관광두레 활동가(PD)는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발전가능성이 높은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창업·경영 개선 지원을 하는 기획자이며,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주민사업체 간 중간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 ☐ 주민사업체는 최소 3인 이상의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숙박·식음·여행 등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지역관광과 경제 활성화 주체로 활동한다. 부산에서는 영도 봉산마을에 ‘청마가옥’이 각테일 체험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 ☐ 시는 먼저, 부산관광공사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내 관광두레협력센터를 조성하고 관광두레 업무를 추진한다. 또한,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영도구·부산진구) 중이거나, 종료(동구)된 구·군을 제외하고 총 13개 구·군을 대상으로 관광두레 활동가와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발굴한다.
- ☐ 그리고 발굴한 활동가와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에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지속 성장 등을 견인하는 한편,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 공모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 유규원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관광두레 사업은 주민 주도 관광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주민 주도의 관광사업체 창업 및 경영 개선 등을 지원하여 지역의 고유성 및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로 지역 기반 관광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051-888-5212) | 게시일 : 2022.08.17.)

## [인천광역시] 인천시, 을왕리 해수욕장서 친환경 클린관광 캠페인

- 20일, 쓰레기 줍고 과자 선물받기 등 관광객 대상 다양한 참여행사 열려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광역시관광협의회(회장 김재오)는 20일 최근 수도권에 집중된 호우와 막바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친환경 클린관광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각종 생활쓰레기, 폐기물, 오·폐수 등으로 관광지의 환경이 훼손되고 있어, 관광객들이 친환경 여행의 소중함 느끼고 지구와 해양을 살리는데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취지다.
- 이날 행사에는 ▲쓰레기 줍고 주최측에 전달하면 과자 스낵(자갈치, 고래밥, 새우깡)을 주는 ‘쓰레기 줍고 과자 선물받기 행사’ ▲환경의 소중함과 가치를 공연을 통해 알리는 ‘해양살리기 버스킹 공연’ ▲환경정화 활동 후 사진 찍어 SNS 인증 후 선물 받는 행사 ▲친환경 관광에 동참한다는 서약을 하고 SPEED STICK 받기 행사 등 지구환경을 살리는 다양한 친환경 클린관광 행사가 개최됐다.
- 특히 ‘쓰레기 줍고 바다과자 받는 프로그램’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 또 을왕리 해변 소무대에서 개최된 해양살리기 버스킹 공연은 친환경 여행에 대한 관심과 환경의 가치를 알리는 기회로 관광객들의 호응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친환경 관광에 동참한다는 서명을 받는 행사도 개최돼 관광객들의 친환경 클린관광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 김경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광객들은 물론 시민들께서도 친환경 클린관광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여행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과(032-440-4042) | 게시일 : 2022.08.21.)

## [전라북도] 관광 활성화 위해 호·영남이 한자리에 제22회 호·영남(전북·경북) 관광교류전 류전 경북 울진에서 열려

- 전라북도 관광자원, 교육여행사업, 전북투어패스, 2023년 전라북도 국제행사 등 홍보

-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와 경상북도가 8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경상북도 울진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호·영남 관광교류전을 개최했다.
- 이 자리에는 관광관련 공무원, 교육청, 관광협회, 여행사 등 60여명이 함께 했으며, 코로나19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관광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2000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관광교류전은 양도의 교차 방문을 통해 각 지역의 관광산업 공동상생 및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시책을 공유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최소인원만 참석하였으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 올해 전라북도는 전북의 관광자원 소개 및 교육여행지원사업 안내, 전북투어패스, 2023년 국제행사 등을 홍보하여, 지역 관광자원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경북 관계자들에게 전북 관광에 흥미를 불러일으켰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 특히, 그간 경북과의 관광교류전을 통해 교육관광(수학여행단)분야 도내유치 실적이 타도에 비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낸 만큼 민간 관광관계자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청과의 밀착 공조를 통해 교육 여행 확대를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전라북도는 관광자원 설명을 통해 대표적인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 뿐만아니라 외부 관광객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팔복예술공장, 이영춘가옥, 익산나바위성당, 정읍무성서원, 아리랑문학마을 등의 숨겨진 관광지를 체험활동과 함께 소개했다.
- 이와 함께, 내년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와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를 홍보했다.
- 이에, 경상북도 관계자는 “전북의 대표관광지 외에도 여러 숨겨진 관광지들과 다양한 관광자원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학생들에게도 좋은 학습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교류전에서는 교육여행지원사업에 대해 선운숙 전라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장이 발표하고, ‘마음의 정원’이란 주제로 완주군 이은지 관광마케팅팀장이 관광자원을 소개했다.
- 전라북도 관광총괄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양 지역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경

북지역에서 전라북도를 많이 방문해 주기를 희망한다”며 “전북과 경북의 화합이 관광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민간 관광관계자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관광객유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관광총괄과(063-280-2706) | 게시일 : 2022.08.19.)

## [전라남도] 전남도, 캠핑문화 확산해 체류형관광 활성화

- 26일부터 해남서 '전남캠핑문화 박람회'...용품요리 등 체험거리 다채

- 전라남도는 안전한 캠핑문화 확산으로 지역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6일부터 3일간 해남 오시아노 오토캠핑장에서 '2022 전남캠핑관광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에는 270여 팀 2천여 명의 캠핑객이 참여한다. 캠핑 장비 전시와 캠핑 체험 프로그램, 공연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제공된다.
- 첫 날인 26일 오후 7시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마술, 난타공연이, 27일 오후 6시부터는 유명 아이돌 가수 공연이 펼쳐져, 엠지(MZ)세대 등의 뜨거운 호응이 기대된다.
- 현대자동차 카라반, 지프(Jeep®) 오프로드카를 비롯해 캠핑 관련 용품 및 먹거리 등 다양한 전시도 준비돼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 가족과 친구, 연인이 함께 즐길 체험 프로그램으로 사랑의 도시락 만들기, 캠핑용품 만들기, 캠핑 요리 콘테스트 등을 진행한다. 안전하고 올바른 캠핑문화를 위한 안전 캠핑 아카데미도 개최한다.
- 깨끗한 캠핑문화를 위해 플로킹 보물찾기 사회공헌 활동, 다문화가정 초청 캠핑행사 등 사회가치경영(ESG) 실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특히 캠핑관광 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남도와 한국관광공사, 해남군, 오시아노 캠핑장 운영사인 (주)파라가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 관광객과 참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담당관제 운영,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전 자가진단점검 실시, 현장체온 측정, 방역게이트 설치 등 철저한 방역대책도 마련했다.
- 김영신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캠핑 박람회는 참여자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전남을 찾는 국내 관광객 1억 명, 해외 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선도하도록 캠핑산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관광과(061-286-5230) | 게시일 : 2022.08.17.)